

참고자료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에 참여한 13개 기업의 서약 및 핵심 발표 내용**

■ **ABB 코리아**

**“2030년까지 자사 온실가스 제로 운영 실현”**

ABB는 130년 이상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고객에게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이 높은 제품을 제공해 온 기술 기업입니다. 2030년 전략 목표는 선도적인 기술 리더로서 저탄소 사회 실현, 자원 보존, 그리고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ABB는 자사 탄소 중립, 제품 80%의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업과 기관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고객들이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ABB는 ‘기술이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ABB 드라이브는 25%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로봇과 디지털 솔루션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급속충전 기술로 전기차가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고, 스마트 빌딩 솔루션은 탄소중립 빌딩 구축을 지원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ABB 고객이 연간 100 메가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100 메가톤은 3천만대 연소 차량에서 연간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산 운영의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해, 중기 계획으로 ABB 코리아는 5년 이내에 자체 공장 전력 사용을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 **아트라스콥코코리아**

**“2030년까지 제품 운영 및 운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저감”**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아트라스콥코는 6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사람, 지구, 수익성 측면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 환경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제품 운영 및 운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30곳에 제품 생산 기지가 있으며, 각 공장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태양열 패널 설치, 새로운 제품 테스트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품 및 물류 이동에 사용되는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수출입 물류 업체와 협업하여 제한적으로 항공 이송을 이용하며 물류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 코리아는 국내 고객에게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소개하며 고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항공 이송을 제어하고 출장 이동을 줄이며, 법인 차량을 하이브리드/전기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엔백코리아**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

엔백은 진공청소기와 같은 원리로 쓰레기 투입구와 송풍기를 이용해 도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지하배관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트럭이 필요 없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현재 한국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스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 엔백은 국내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 산업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한국 환경산업협회에서 추진하는 '우수환경 기업해외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 환경 기술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엔백은 2030년까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사용하게 되는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2020년 기준 20% 감축해 녹색 지구,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케아코리아**

**“2025년까지 100% 전기차 가구배송 서비스”**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 국내에 본격 진출한 이케아 코리아는 우리 모두의 집이자 안식처인 지구를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기후안심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활동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4개 매장에 친환경 솔루션을 도입 (3개 매장 세계적 친환경 빌딩 인증제 '브리엄(BREEAM)' 획득,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허브'를 도입, 이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홈퍼니싱 제품 및 솔루션을 (현재 전체 제품군 중 70%에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 2030년까지 100% 전환 목표) 낮은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케아 코리아는 2025년까지 가구 배송 차량의 100%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해 전체 가구 배송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25%를 달성하며 2021 회계연도 목표인 20%를 조기 달성한 바 있습니다.

■ **크라프트파워콘코리아**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저감”**

크라프트파워콘은 한국 정부 기관 및 한국에서 활동하는 고객과 협력해 한국의 녹색전환 및 그린 뉴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과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선도적인 기술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크라프트파워콘의 전력 변환 기술은 수소 생산에 사용되어 수소 산업이 신속한 확장과 총소유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기오염 제어를 위한 당사의 솔루션은 1950년대 이래로 대기 중 입자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플랜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해양생태계 보

호를 위해 수천 대 선박의 밸러스트 수처리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크라프트파워콘은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적 이익을 위한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 할 것을 약속하며 공급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전체 공급망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오클라코리아**

**“2025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전환”**

오클라코리아는 북유럽 No.1 소비재 브랜드 회사인 오클라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식품, 제과, 생활용품 브랜드 중 우수한 품질과 건강한 제품을 한국 및 일본의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클라 그룹은 2015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UN SDG를 바탕으로 한 매우 야심찬 2025 지속가능성 목표를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클라코리아에서는 다 쓴 플라스틱과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조르단 그린클린 친환경 구강위생용품,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획을 인증한 맛있고 영양 많은 스타부르 고등어/연어 캔 제품,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건강하고 맛있는 오엘비 비건 스낵 등 오클라코리아의 운영 제품을 2025년까지 100%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제품으로 전환해, 한국 정부에서 선언한 녹색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코리아**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2배 확대”**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는 북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바이오가스 생산 및 친환경 비료 공급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에너지원으로 직접 활용 가능한 저순도 바이오가스 뿐 아니라, 이를 정제해 차량 등 운송용 연료로 이용 가능한 바이오메탄을 공급하고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비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플랜트 운영을 통해,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을 탄소 중립적인 방법으로 바이오가스 및 친환경 비료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가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스웨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활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은 2020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의 사업 모델에 대해 친환경성 평가 기관인 CICERO shades of Green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Dark Green을 100% 인증 받은 최초의 Nasdaq Nordic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 **스카니아코리아그룹**

**“2026년까지 운행 차량 탄소배출량 20% 절감”**

스카니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근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탄소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상용차업계 최초로 과학기반감축목표(SBTi)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 년까지 모든 스카니아 시설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50% 감소함과 동시에 모든 스카니아 제품으로부터는 20%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스카니아는 끊임없는 노력과 주도적인 실천으로 2021 년 현재 전세계 공장 시설의 비화석연료 전기화를 실현하여 탄소배출량 50% 감소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4.2%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25 년까지 20 %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 가능 연료 및 전기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은 에콜루션 코리아 1.0 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스카니아 트럭과 시설로부터의 탄소배출량을 2026 년까지 20% 줄이는 것으로,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제품 개선, 운전자 교육을 통한 연비 절감, 시설물의 비화석연료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년부터 전세계에서 '기후의 날'을 지정하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목표를 설정하여 종이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17%까지 감소하는 등, 스카니아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SF 마리나코리아**

**“2025 년까지 탄소제로 Floating 빌리지 건설”**

SF 마리나는 지난 100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마리나와 부유식 건축물을 만들어 왔으며, 이제 “탄소제로”라는 아이디어를 “Floating Village”라는 재미있고 즐거운 장소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Floating Village 는 탄소 제로 및 에너지 자급 프로젝트로 이 개념은 스웨덴에서 현실화되었으며, 한국에서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부유식 구조물은 자연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부유식 구조물의 수명이 끝나면, 그 구조물들은 철거 가능하고 그 장소들은 영구적인 변형 없이 원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보다 더 발전한 안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회복 가능한 부유식 구조물에 더하여, 건축물의 생명주기동안 탄소제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Floating Village 는 부유식 에너지자급 프로젝트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독립적으로 생산될 것이며, 전체 빌리지에 제공됩니다. SF 마리나는 2030 년까지 한국에서 두 개의 탄소제로 Floating Village 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 **테트라팩코리아**

**“2030 년까지 자사 온실가스 제로 운영 실현”**

테트라팩은 지속가능성과 식품안전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사의 생산활동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실천하고 있으며, 식품업계 최초로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SBT)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투자하고 고객사,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저탄소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볼보자동차코리아**

**“2030년까지 100% 충전식 전동화 자동차”**

볼보자동차는 1927년 스웨덴 고텐버그에서 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무엇보다 안전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며 도로 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도로 위 안전을 넘어, 지구의 안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겪고 있듯이 오늘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2018년부터 출시된 모든 신차에 디젤 엔진을 배제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오피스와 전국 전시장, 행사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30년까지 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에 순수 내연 기관 모델을 전면 배제하고 “충전식 전동화 자동차, Rechargeable Car”로 전환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전식 전동화 모델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 지속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글로벌 비전을 따르는 액션 플랜이자, 한국의 녹색성장을 함께 하고자 하는 저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 **볼보건설기계(볼보그룹코리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저감”**

볼보그룹코리아는 볼보건설기계그룹의 '더 나은 세상 만들기(Building Tomorrow), 모두가 살고 싶은 세상 만들기(We build the world that we want to live in)'라는 사업 목표를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환경 녹색전환 기술 및 제품 개발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굴착기, 전기 굴착기 나아가 수소 전지 굴착기를 포함한 친환경 첨단 건설장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저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볼보건설기계그룹 내 최대 굴착기 생산 거점인 창원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2030년까지 50% 저감할 계획입니다.

■ **볼보트럭코리아**

**“2040년까지 100% 탄소배출 제로 트럭”**

볼보트럭은 글로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판매되는 볼보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감축 ▲2040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볼보트럭의 전기트럭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 ▲2050년까지 판매되는 볼보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달성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중장기 목표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볼보트럭의 연비 절감 솔루션 'i-Save'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측면에서는 전기트럭, 연료 전지, LNG 등 국내 트럭 산업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드라이브라인 제품 출시에 대한 청사진도 준비하고 있으며, 리테일 부분에서 태양 전지 패널, 히트 펌프 및 대체 교통 수단과 같은 녹색 에너지 솔루션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하는 등 국내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해서 고객과 소통하며 환경을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볼보트럭은 핵심가치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대형트럭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제조사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고객과 운송 구매자가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